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⑬ 인수봉



마침내 지혜 · 복덕의 문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해발 804m 높이의 화강암 암벽으로 예로부터 백운대, 만경대와 함께 삼각산이라 불려왔다. 인수봉을 부아악(負兒岳)이라고도 불렀는데 큰 바위 옆에 또 다른 바위가 덧붙여 마치 아기를 업은 어머니와 같다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인수봉이라는 이름은 논어의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지자락수 인자락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되게 하기 위해 깊은 수련에 들어갔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을 깊이 통찰했다. 무엇이 선인가? 그렇게 하기를 수십 년, 마침내 선의 실체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보름달처럼 떠올랐다. 아! 이것이 선이구나. 선의 실체를 통찰한 인수봉은 그것을 자신과 일치시키기 위해 내면을 닦는 수련에 들어갔다. 자신을 낮추고, 큰 봉우리들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며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공경했다. 공경하는 마음이 순일하여 먼지 한 톨 들어갈 여백이 없자 그 마음이 곧 선이 되었다. 인수봉은 밝은 햇빛이 천지를 가득 채우면 어둠이 끼어들 여지가 없듯이 선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악이 끼어들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선이 자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인수는 예(禮)를 수련할 때와 똑 같은 방법으로 모든 생명과 사물을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했다. 그렇게 천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련에 임하자 어느 날부터 햇빛이 만물에 스며드는 것처럼 선을 향하여 있어 결핍이 없었다. 인수봉은 선(善) 수련을 내려놓았다.

인수봉은 똑 같은 방법으로 정성스러운 성(誠)과 옴음의 의(義)를 수련했다.

천 년 동안의 수련으로 성(誠)을 수련하고 다시 천 년의 세월 동안 의(義)를 수련했다. 그러자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대함에 있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되었고, 오롯하게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다. 비로소 인수봉은 성(誠)과 의(義)의 수련을 내려놓았다.

인수봉은 다시 침묵 속에서 자신이 수련한 덕목을 지켜가기 위해 천 년의 세월을 보냈다.

인(仁)은 만상 안에 공평하게 들어있지만 그것을 내어 자유롭게 쓰기는 참으로 어렵다. 인(仁)은 내 안에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것을 내어 자유롭게 쓰기는 더더욱 어렵다. 있는 것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내가 인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수봉은 긴 수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상대방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공경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의 문이 열리고 복덕의 문이 열리고 도의 문이 열려 마침내 인(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됨을 안 것이다. 인수봉은 긴 침묵 속에서, 인(仁)을 완성하여 지고지선(至高至善)을 세상에 펼칠 성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므로,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인수봉을 사람들은 장엄함과 강건함과 빼어난함과 수려함과 경건함을 느끼며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끝> <애기꾼> 유하순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재는 단행본 <북한산 꼭지>로 출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22면>

백운대 · 만경대와 '삼각산'으로 불려

'인수봉' 논어의 '지자락수...'에서 비롯

仙人 품은 인수봉 인(仁) 완성하여

지고지선(至高至善) 펼칠 성인 기다려

예를 통찰한 인수봉은 그것을 자신과 일치시키기 위해 다시 깊은 수련에 들어갔다. 처음엔 높은 봉우리 하나하나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닦았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 봉우리를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며 공경하고 또 공경했다. 그러자 높은 봉우리 하나하나에 예의를 갖추는 일이 햇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인수봉은 이만하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향해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다시 작은 봉우리 하나하나부터 큰 바위, 작은 바위, 돌과 흙에 까지 예의를 갖추었고, 그것은 짐승과 새에게, 그리고 벌레뿐 아니라 나무와 풀, 꽃과 열매에게로 이어졌다.

마침내 인수봉은 구름이나 바람,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닦았다. 그렇게 하기를 천 년, 예의와 자신이 하나가 됨을 통찰한 인수봉은 예의를 닦는 수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선(善)은 만상의 근본 성품이다. 하지만 그것을 잘 닦아 쓰지 않으면 선은 모습을 감춰 쓰기가 어렵다. 인수봉은 높고 거대한 자신의 몸이 선과 하나가

日 황실 발원으로 건립된 첫 사찰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⑬ 교토 난젠지



일본 교토 난젠지(南禪寺)의 산문(三門). 한 다이묘가 무사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



난젠지의 정원. 카레이산시의 전경이다.

교토의 난젠지(南禪寺)는 수많은 교토 선종 사찰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20m는 족히 될 듯한 거대한 산문(三門)을 비롯해 국보로 지정된 방장(方丈), 카레이산시 정원 등 유물 볼거리가 많은 사찰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원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다이묘(大名)이자 뛰어난 다인(茶人)이었던 고보리 엔슈(小堀遠州)가 심미안을 한껏 발휘해 만들어 더욱 유명하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의 저서 <일본선의 역사>에는 난젠지 개창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불교에 대한 독실한 신심을 가진 가메야마(龜山) 천황은 교토 동쪽에 있던 자신의 별궁을 사원으로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불교를 전한 신지 가쿠신(心地覺心) 스님에게 개산조가 되 줄 것을 요청했으나 스님은 고사했다.

천황은 결국 별궁을 젤린지(禪林寺)라는 선찰로 만든 뒤 스님들을 주석토록 했다. 그 후 갑자기 절에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고, 신통력이 있다는 스님들을 불러 온갖 기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무간 후문(無間普門, 1212~1291) 스님으로 그는 젤린지에서 선승 20여명과 3개월간 참선수행에 들어갔다. 그렇게 3개월가량을 지속하자 더 이상 귀신이 출몰하는 일이 없어졌고, 가메야마 천황은 후문 스님을 개산조로 삼았다.

난젠지가 현재의 사격을 갖춘 것은 2대 주지인 소엔 스님(祖圓, 1261~1313) 때이다. 소엔 스님은 20년간 주지를 맡으며 도량을 현재의 규모로 완성해 명실상부한 일본 제일 선종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무엇보다 난젠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삼문이다. 1628년 한 다이묘가 전쟁에서 죽어간 무



난젠지의 다실.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다.



산문에 늘어난 지역 학생들의 모습이 정겹다.

거대한 위용의 三門 '눈길'

초조대장경 521종 보관돼

'철학의 길' 한번 걸어보길

사들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지어 기증했다고 전해지는 건물이다. 소정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맨 위까지 올라가 볼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참배객들이 몰리며,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는 좋은 휴식처이기도 하다.

난젠지는 한국과의 인연이 깊다. 이곳에 고려 초조대장경이 보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량은 521종 1823점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초조대장경 전체의 1/3에 해당했다. 고려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초조대장경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로 복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난젠지 스님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난젠지에 초조대장경이 수장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에서는 임진왜란때 왜구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베 젠쇼지(禪昌寺) 주지인 곤도 도시히로(近藤利弘) 스님은 2007년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개최한 초조대장경 국제워크숍에서 "젠쇼지의 에도(江戸)시대 기록을 볼 때 일체경은 원래 젠쇼지에 있던 것을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에 의해 지금의 난젠지로 옮긴 것"이라며 "원(元)판에 더해 1400년부터 1429년까지 부족한 부분을 고려나 중국 각지에서 출판된 것을 구입하거나 일본에서 추가해 지금의 일체경을 갖췄다. 일체경은 임진왜란 훨씬 이전인 조선 초기에 이미 완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난젠지에 들리면 꼭 들려야 할 길이 있다. 바로 '철학의 길'이다. 교토대학 근처에 있는 '철학의 길'은 교토의 허가시야마(東山) 산기슭, 긴가쿠지(銀閣寺)에서 난젠지에 이르는 2.5km 정도의 길이다.

실개천 옆으로 난 이 길을 오르내리면서 '교토학파'의 중심인물인 니시타 기타로(西田幾多郎, 교토대 교수)의 철학이 정립됐다고 한다. '종교와 절대무(絕對無)'를 탐구했던 교토학파의 형성은 이 길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끝>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지: 한지 108장 • 표지: 레자크지 읍셋 4
• 제본: 한장본 실제본 • 크기: 435mm×300mm



한지인출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기: 9×2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삼매 삼재폴이
판매가 800원(100개 이상)
정가 1,000원
• 포장: 봉투 삽입



한지 삼재폴이
판매가 700원(100개 이상)
정가 900원
• 포장: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판매가 160원(600개 이상)
정가 200원
• 포장: 봉투 삽입

양초 합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 이상)



믿음과 정직의 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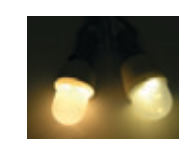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등 (6cm) @2,700원 (50개 이상)
• 바림등 (8cm) @3,200원 (50개 이상)
• 바림등 (10.5cm) @6,000원 (24개 이상)
• 바림등 (13cm) @13,000원 (12개 이상)
• 바림등 (20cm) @35,000원 (4개 이상)
• 바림등 (30cm) @80,000원
• 공단등 (6cm) @2,700원 (50개 이상)
• 공단등 (8cm) @3,200원 (50개 이상)
• 공단등 (10.5cm) @6,000원 (24개 이상)
• 공단등 (13cm) @13,000원 (12개 이상)

- 비닐만월등(중국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등철사(100개) 6cm/8cm/10.5cm/12cm
75,000원/80,000원/85,000원/90,000원

★국산★ 방수전선 (한글50구)
23cm / 25cm / 30cm | 50cm 1m / 2m
5줄이상 @ 75,000원 | 기타주생선산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50개
색상: 옅분색/주광색



전구(10W/5W)
@ 220원 / @ 300원
1BOX: 100개
제조국: 베트남



연잎(일본)/바림연잎
5,000원 / 7,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분홍/녹색/흰색



집계부착 / PVC등표(100개)
20,000원 / 12,000원
크기 8.5×21cm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